

■ '광주 잇단 강력사건' 범인 왜 못잡나

베테랑 형사들이 본 문제점

전문화 미흡·관할 뒤죽박죽...공조 안된다

광주에 크고 작은 강절도, 조직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범인 검거 소식은 요원하다. 최근 일어난 노래방 강도사건 등과 관련, 20년 이상 베테랑 형사들이 지적한 수사상의 문제점은 이렇다.

◇유사 사건 수사 주체 달라=지난해 남부서 관내에서 발생한 모 건설업체 실제 사주인 공모(52)씨 사건은 남치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신상까지 파악된 상태. 하지만 남부경찰이 수사하던 이 사건은 전남청 광역수사대로 넘어갔고, 남부서에서 3명만 과격되는 등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됐다.

수사경비 부담 출장 꺼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S건설 사장 김모(53)씨 피습사건의 경우도 공서 사건과 관련성이 짙다는 게 대부분 형사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김씨 사건은 남부가 관할하고 있는 등 수사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진 활성화하고 전문요원 적재적소 배치해야

◇수사지원비 턱없이 부족=응의자를 찾아 시도 때도 없이 전국 각지로 출동해야 하는 형사들에게 수사지원비(출장비 등)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일선 형사들의 출장비는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7만3천600원, 교통비는 무궁화 열차 요금 기준이고, 일일 활동비 1만5천원·식대 1개당 5천원 수준이다. 하지만 일선 형사들 대부분이 출장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 비용·기름값 등을 따지면 출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그나마 사전 지급된 경우는 거의 없고 한 달여 뒤에나 입금되는 일이 많다. 남부서의 1팀(4~6명)당 한 달 수사비는 200만원 한도다. 이 때문에 추가로 자기부담이 들어갈 경우 타 지역 출장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공조 수사는 뒷전=최근 7번이나 발생한 노래방 강도사건은 단적인 예이다. 지난해 12

월28일 최초로 북부서 관할에서 발생했으나 응의자 신상 등에 관한 정보는 일선 경찰서끼리 공유되지 않았다. 각 경찰서별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몽타주 작성만 두달 걸려

오는 5월 광주청 개청과 맞물려 전남지방경찰청의 통합 지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7일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계속됐다. 경찰은 결국 노래방 강도 사건 최초 발생 후 두 달여 만인 7일에서야 몽타주를 작성하는 등 뒤늦게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근무시스템 문제=남부서의 경우 당일 발생한 사건은 당일 근무조가 처리하는 게 원칙. 예컨대 8일 봉선동에서 절도사건이 났으면 8일 강력반 근무조가 담당하나, 9일 또다


시 봉선동에서 동일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팀이 맡게 된다. 이처럼 지역별·사건 유형별 전담제·전문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다. 광주처럼 대도시는 각 경찰서끼리 공조를 유지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다.

◇인력구조 비효율=일선에서 방법을 담당하는 광주지역 5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2천304명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순경은 9명, 경장은 408명에 불과하다. 또 초급 간부인 경위 승진이 올해부터 근속 승진제(경사→경위 8년)로 바뀌면서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

전남청 A 경감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진 등 인센티브를 내거는 것도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광주청 개청에 앞서 전문화된 베테랑 수사·형사 요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후의 포근함







맑은 후 밤에 구름이 많아 지겠다.

3월 9일 (음 1월 20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0~13℃
대전	맑음	2~12℃
대구	맑음	2~11℃
부산	맑음	0~13℃
서울	맑음	-4~14℃
인천	맑음	-3~14℃
경기	맑음	-2~12℃
충청	맑음	-3~14℃
전남	맑음	-2~12℃
전북	맑음	-3~14℃
강원	맑음	1~13℃
제주	맑음	-3~13℃
경남	맑음	-1~13℃
충남	맑음	-3~13℃
충북	맑음	-1~13℃
강원	맑음	-1~13℃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2m
목포 밀물 < 05:16 썰물 < 10:26
여수 밀물 < 11:39 썰물 < 05:35

▲해돋이 06:53 ▲해질 18:34 ▲달돋 23:37 ▲달짐 09:0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날씨						
최저/최고	5/11	-3/8	-2/11	-2/12	1/13	4/10

5·18 보상업무 정부 이관 추진

광주시는 8일 "5·18민주화운동 보 상업무는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국가사무인데, 아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민원인 불편등 부작용이 많아 정부에서 직접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보상 초기에는 관련자 대부분이 광주에 거주했으나 현재는 전국에 분포하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5·18의 전국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신청자 일부의 조직적 방해로 심사위원 구성이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국무총리의 권한인 보상업무를 광주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5·18 관련 여부 신청자들의 반발도 문제다. 신청자들은 "시가 무책임하게 정부로 책임을 미루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1990년 보상법 제정 이후 모두 5차례 5천63명을 5·18 유공자로 인정해 2천230억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제5차 보상 재심(280명)과 제6차 보상 신청접수(1천7건) 등이 진행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여성 비정규직 철폐하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제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광주여성대회'를 갖고 '여성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포근한 주말·영하권 휴일

광주·전남 날씨 '널뛰기'

변덕날씨 안개 주의

주말과 휴일을 전후해 광주·전남 날씨가 '냉·온탕'을 오가며 '널뛰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경침(鶯鶯·6일)을 앞두고 찾아온 꽃샘 추위가 고기압에 밀려가면서 9일 낮 최고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그러나 휴일인 11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는 12일 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상청은 또 "9일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낀 뒤 주말인 10일 오후부터는 광주와 전남지역에 5mm 내외의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이라며 "비가 그친 뒤 다시 쌀쌀한 날씨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영상과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새벽과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며 "능선·산간지역을 달리는 차량이나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5·18을 폭동·사태로' 국민 20% 잘못 인식

국민 10명 중 2명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나 '사태'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18기념재단'은 8일 "지난해 말" 리서치 연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왜곡된 견해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5·18을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10.2%가 '폭동', 10.1%는 '사태'라고 답했다. 또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응답이 47.4%였으며, '민중항쟁'은 24.8%였다.

/김주정기자 jjnews@

엄마 야식 즐기면 아이 비만 위험 2.7배

엄마가 야식을 즐겨 먹으면 아이의 비만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성심병원 박경희 교수팀은 경기도 군포의 22개 초등학교 5학년 4천43명을 대상으로 소아비만과 생활습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야식경향이 아이의 비만 위험도를 2.7배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부모 중 한쪽만 야식을 먹을 때 비만위험도는 1.4배 증가한 반면 부모 모두에게 야식경향이 있는 경우는 비만위험

도가 2배로 증가했다.

또한 출생시 아이의 몸무게가 3.5kg을 초과하면 3.0kg 미만인 경우에 비해 소아비만의 위험도가 1.3배 증가했으며, 4시간 이상 TV 시청은 1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해 1.5배, 3시간 이상의 컴퓨터 이용은 1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해 1.6배 가량 각각 비만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복지부 내년부터 부착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9일부 터 입법예고했다.

흡연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캐나다·호주·브라질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망가지 치아와 심장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브라질은 과사한 다리 사진을 그대로 실고 있다.

복지부 측은 "흡연 경고 그림이 흡연 경고문구에 비해 60배나 더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담배규제 기본협약"에서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뒷면에 전체 넓이의 30% 이상 크기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되, 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게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리투이

2007년 3월 9일 금요일

1. 3월 9일(금) 19:00 ~ 21:00
2. 3월 10일(토) 19:00 ~ 21:00
3. 3월 11일(일) 19:00 ~ 21:00

포이트레블

3월 9일(금) 19:00 ~ 21:00
3월 10일(토) 19:00 ~ 21:00
3월 11일(일) 19:00 ~ 21:00

오우유(우유)

오우유 1L 1,100원
오우유 2L 2,100원
오우유 3L 3,100원

광주출발 중국관광

1. 광주/호주/방콕/푸켓/시애틀 \$399,000
2. 광주/호주/방콕/시애틀 \$399,000

광주출발 중국관광

1. 광주/호주/방콕/푸켓/시애틀 \$399,000
2. 광주/호주/방콕/시애틀 \$399,000

오우유(우유)

오우유 1L 1,100원
오우유 2L 2,100원
오우유 3L 3,100원

광주출발 중국관광

1. 광주/호주/방콕/푸켓/시애틀 \$399,000
2. 광주/호주/방콕/시애틀 \$399,000

광주출발 중국관광

1. 광주/호주/방콕/푸켓/시애틀 \$399,000
2. 광주/호주/방콕/시애틀 \$399,000

오우유(우유)

오우유 1L 1,100원
오우유 2L 2,100원
오우유 3L 3,100원